



# 조선대학교병원뉴스

## CHOSUN UNIVERSITY HOSPITAL NEWS

·발행인 : 이상훈 ·편집인 : 이은영 ·기획편집 : 조선대학교병원 홍보팀 ·홈페이지 : <http://hosp.chosun.ac.kr> ·대표전화 : (062) 220-3114 ·홍보팀 : (062) 220-3288 / FAX 226-5882 61453 광주광역시 동구 칠원대로 365 동진 제124호 2018년 1월 09일 09일

## 신년사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소망하셨던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조선대학교병원은 1971년 개원 이래 47년간 “환자 중심의 인술로 고객에게 심신의 온전한 치유를 선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한다”라는 미션을 실천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2018년 새해에는 그동안 준비해온 노력이 결실되어 한 단계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외래진료센터(3관) 개소로 환자분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치료를 위한 환자 중심 병원에서 더 나아가 병원 리모델링 공사 마무리를 통한 휴식과 치유가 가능한 다시 찾고 싶은 병원이 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환자분들의 심신의 온전한 치유를 위해 IBM 왓슨 도입을 통한 인공지능 암센터를 비롯한 최첨단 의료장비의 강화와 우수한 교수진으로 구성된 다학제 진료 활성화를 통해 정확한 의료진단과 처방으로 전문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자와 가족은 물론 지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광주해바라기센터, 광주금연지원센터, 광주광역치매센터 등을 비롯한 국책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공공의료보전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전국최초 권역감염병 전문병원에 선정되어 메르스를 비롯한 신종감염 질환에 철저한 대비를 통해 가장 안전한 병원을 만들고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사회의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국내·외 의료봉사에서 앞장서고, 예기치 못한 재난 구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박애정신 실천에 전 교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병원은 앞으로도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삶을 보듬는 따뜻한 의료기관으로 성장하도록 많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올 한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조선대학교병원장 배 학 연 배상



## 소통과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병원을 만들어 나가자

제21대 이상홍 병원장  
제22대 배학연 병원장 이·취임식



### 1 조선대학교병원 병원장 취임 인사말

제22대 병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론, 의료계가 처한 현실 속에 진정한 변화와 혁신으로 지역은 물론 국내·외에서 신뢰받는 병원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감을 느끼지만,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임하여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 2 병원 47주년을 맞이하여 나아갈 방향과 실행계획

병원의 내실을 다져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효율적인 환자 진료를 위해 변화와 혁신을 환자들과 가까운 곳에서부터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타 병원과의 협진시스템을 강화하고 병원이 하나의 공동체로 합심과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9월 호남최초로 'IBM 왓슨포온콜로지'를 이용한 '인공지능 암센터'와 이에 우수한 교수진의 다학제 진료는 물론 전국 최초로 선정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광주광역시치매센터, 광주금연지원센터 등 국책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공공의료보전 활동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병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3 국내·외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

지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맞춤형 봉사활동(장애인 봉사활동, 농어촌 의료봉사, 외국인 근로자 의료봉사) 및 개방형 의료봉사활동으로 지역민과 소통하며 친밀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하여 수술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의료혜택 취약계층을 위한 해외의료봉사(캄보디아, 몽골, 태국 등) 활동과 예기치 못한 재난 구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박애정신을 실천하겠습니다.

### 4 광주 전남 지역민에게 하고싶은 말

47년간 지역의 사립대학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항상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지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 이상홍 병원장님과 집행부 및 모든 교직원들이 노력한 부분에 저 역시 지역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환자중심의 인술을 실천하며, 모든 구성원의 단합된 힘으로 지역밀착형 병원으로서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 5 배학연 병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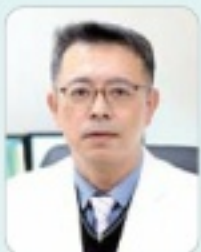
배학연 병원장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으로 캐나다 켈거리 의대 당뇨병 연구소 교환교수, 대한 당뇨병학회 호남지회 회장, 대한 내분비학회 호남지회 회장, 영호남 내분비대사연구회 회장, 대한당뇨병학회 회장 등 활발한 대외활동과 더불어 조선대병원 응급실장, 당뇨병센터장 등 병원의 대표로서 인정받은 의학 전문가이다.

### 집행부 보직인사

부원장

김진호 교수  
신경과

기획실장

정준훈 교수  
신장내과

진료부장

김석현 교수  
신경외과

교육연구부장

최남규 교수  
외과

대외협력실장

손훈문 교수  
정형외과

의료질관리실장

김선표 교수  
응급의학과



## 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의료봉사 실시



12월 7일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회장 윤정현,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의료봉사단은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피부과 의사와 간호사, 약사, 행정 등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100여명의 장애인 체육선수들에게 진료 및 건강상담, 혈당·혈압체크, 약제처방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도 많은 장애인 체육선수 및 보호자, 관계자분들이 방문하여 의료봉사단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형외과 박성해 전임의는 "신체적 장애와 의사표현의 한계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뜻 깊은 활동을 펼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한두해 단발성 의료봉사가 아닌 장애인들을 위한 꾸준한 의료봉사를 실천하여 밝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11월 15일 오후 4시,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와 업무협약식을 거행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성(性)충동 약물치료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상호간에 협약서를 전달했으며, 3년동안 양 기관은 긴밀한 공조관계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 성충동 약물치료대상자의 약물 치료 ▲ 성충동 약물치료대상자의 심리 치료 ▲ 기타 성충동 약물치료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1988년 보호관찰법이 제정된 이래 물리적/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인 요인이 결부되어 나타나는 현 시대의 많은 문제에 대해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심리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양 기관은 깊은 공감을 나눴다.

## 수완행복한요양병원과 진료협약 체결



12월 15일 수완행복한요양병원(병원장 최봉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 주요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협력병원간의 상호 환자뢰 및 회송, 최신의학정보교류를 통해 협진 체계를 유지하고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계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진료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환자진료와 임상교육을 위한 인식 및 기술적 지원 ▲임상 및 기초분야 공동연구 및 학술지원 ▲진료뢰뢰 환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의학정보 교환 및 진료 후 회송 ▲각종 학술대회 및 교육 참여 기회 제공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지원 등이다.

한편, 수완행복한요양병원 최봉남 병원장은 1996년 11월부터 1998년 11월까지 조선대병원 11대 병원장을 역임하여 병원 발전에 이바지했다.

## 조선대병원 어업안전보건센터, 전남해양수산과학원과 업무협약 체결

어업안전보건센터(센터장 이철갑)는 11월 21일 전남지역 어업인의 건강관리 및 실태조사를 비롯한 연구와 어업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남해양수산과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 지역 건강증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어업안전보건센터를 통해 전남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무료 골관절염 연구치료를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기존 어업인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어업인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며 올해는 1개 과목만 시범 운영한 후 2018년부터 정규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어업안전보건센터'로 지정되어 2017년까지 어업인의 건강실태 조사 및 건강 관련 연구를 시행하며, 지난 6월과 9월에는 완도군을 찾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큰 호평을 받았다.







## 광주금연지원센터, 광주지역 금연 이끌어 나갈 센터로 재선정

▶ 제2기 지역금연 민간보조사업 사업수행에  
조선대병원 광주금연지원센터가 광주지역에 유일하게 다시 선정

광주금연지원센터(센터장 임동훈)가 지난 3년간 1기 사업을 마치고, 보건복지부의 공모를 통해 제 2기 지역금연 민간보조사업에 재선정됐다.

광주금연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민간 보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지난 3년간(2015~2017년) '단기금연캠프 및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금연환경조성사업'등을 수행하며, 광주광역시 흡연자들의 흡연을 감소를 통해 직·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임으로써 건강 증진에 기여해왔다.

앞으로 시행될 제2기 지역금연사업(2018~2020년)은 기존 1기 사업에 비해 5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병원 입원환자를 포괄하여 새로운 금연지원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다.



##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 위한 무등산 희망 걷기대회 동참



11월 12일 오전 10시, 무등산 옛길에서 열린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 치료기금 마련을 위한 '제9회 희망걷기대회'에 참여하여 힘찬 발걸음으로 희망을 전달했다.

생명나눔희망 걷기대회는 광주전남지부가 2009년부터 개최하여 올해 9회째를 맞는 행사로, 광주 무등산을 걷는 '백혈병 소아암어린이 돕기 희망걷기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소아암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어린 환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치료기금을 마련하

기 위해 진행했으며, 무등산 옛길을 돌고 다채로운 볼거리를 마련하여 참가자들에게 뜻깊은 시간을 제공했다.

행사에 참가한 박찬국 소화기내과 교수는 "밝은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한 마음이 되자"며, 생명나눔실천본부 광주전남지부장 현지 스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보성 용정중학교 학생방문단에 진로체험학습 진행

12월 6일 병원을 찾은 보성 용정중학교 학생방문단을 맞아 진로체험학습을 진행했다.

진로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의료직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진로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날 학습일정은 ▲심폐소생술 교육 ▲보건의료 직종별 업무 및 직업군 소개 ▲병원 견학 등으로 구성됐다.

의사가 꿈이라는 여학생은 "오늘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병원에는 의사와 간호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이 있다는 사실과 그분들 모두가 병원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 새로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어린이 환우 위한 키즈오페라 공연 열어



12월 4일 병원 2층 하종현홀에서 종근당의 후원으로 한국메세나협회와 MIRI오페라단이 함께한 키즈오페라 '안녕~팔꼭!'공연을 열었다.

이번 오페라는 어린이들이 겪어가는 신체적·심리적 변화 등의 성장통을 주인공이 겪는 팔꼭질 콤플렉스에 빗대어 극복해나가는 이야기로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 전달과 함께 크리스마스 특집에 맞춰 어린이 환우들의 공연 참가를 이끌어냄과 함께 선물을 전달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다.

공연 후에는 오페라 출연진들이 준비한 비타민 사랑과 캐릭터 책자 및 조선대병원 홍보팀에서 준비한 비누와 연습장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는 등 다양한 이벤트에 어른과 아이 모두 즐거워했다는 후문이다.





## 몽골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관상 수상

▶ 한·몽 서울 연수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 인정



12월 6일 몽골 보건복지부 대회의장에서 「한·몽 서울 연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몽골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한·몽 서울 연수 프로젝트」는 몽골 연수의들에게 선진 의료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국내 유수의 병원을 선정하여 연수의 교육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2015년 1월부터 몽골국립의과대학 연수의들을 초청해 선진 의료기술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조선대병원은 같은 해 5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한·몽 서울 연수 프로젝트」 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연수의 29명(전공의 : 25명, 전임의 : 4명)이 교육을 수료하고 몽골에서 의학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조선대병원은 2015년부터 꾸준히 몽골 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봉사단을 파견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초청하여 무료로 수술해주는 등 사랑의 인술을 펼친 공로도 인정받았다.

## 직업환경의학과, '특수건강진단 기관' 평가 S등급 획득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7년 전국 특수건강진단기관 종합평가'에서 4개등급(S·A·B·C)중 호남지역의 대학병원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기화합물·중금속·소음·분진 등 다양한 유해인자(179종)에 의한 직업병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한 진단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특수건강진단 수준의 향상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2년마다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의 206개소를 대상으로 ▲진단 및 분석능력 ▲시설 및 장비 ▲진단 신뢰도 ▲교육이수 등 73개의 평가항목에 대해 심사했다.

그 결과, 조선대병원을 포함한 43곳(20.9%)만이 S등급을 획득했으며, 고용노동부로부터 2년간 정기점검을 면제받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 '관상동맥우회술' 1등급 획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조사·발표한 제4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

심평원은 ▲관상동맥우회술 수술 건수 ▲수술시 내흉동맥 사용 비율과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한 재수술 비율 ▲수술 30일 내 사망률 ▲수술 후 입원일수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시술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여자보다 남자의 발병 비율이 높으며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심장질환에 적합한 수술인 '관상동맥우회술'은 좁아진 관상동맥의 혈관을 대신해 다른 혈관으로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 주는 수술을 말한다.

## 2017 한국병원약사회 학술대회에서 조선대병원 두각

전국의 병원약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학술 성과를 공유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2017 한국병원약사회 학술대회 및 총회가 11월 25일부터 26일 양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됐다.

시상식에서 2015년도 김광준 약사에 이어 두번째로 미래병원약사상 수상에 임태환 약사가 선정됐고, 2014년 순환기약료전문약사를 취득한 박선희 약사가 노인약료전문약사를 취득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서 유

일하게 두 분야의 전문약사를 취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17일에 이뤄진 제31회 '약의 날' 기념식에서는 최인 약제부장(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갈 약제분야에 조선대병원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박선희 약사



임태환 약사



## 태국 멕코믹병원장외 6인, 조선대병원 방문



태국 멕코믹병원(병원장 Usaneeporn Sriminipun, 아짠 어의) 방문단이 11월30일 오전 10시 방문했다.

이번 방문단은 멕코믹병원의 병원장 [아짠 어의], 대외협력실장 [꺼이], 간호 부원장 [쨌], 멕케이나병원 부원장 [와릿], 콰이강기독병원의사 [아티탄] 외 박진영 선교사와 신주용 목사 2인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병원 관계자와 함께 음압병동 및 하이브리드혈관센터 등 병원 곳곳을 둘러보며 최신 의료장비와 시설,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호남권역재활병원도 방문하여 호남권역재활병원장인 문경래 교수(소아청소년과)를 만나 선진화된 맞춤형 재활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최첨단 재활기구들을 직접 체험하고 보조기구를 견학하는 등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소아청소년과가 전공인 아짠 어의 멕코믹병원장은 문경래 교수와 소아재활에 대하여 열띤 토론과 정보를 주고 받고 소아환자들의 밝은 미래를 기도하는 등 참된 의료인의 모습도 보였다.

또한, 광역치매센터 교육실에서 박진영 선교사가 걸어온 아름다운 길을 멕코믹병원 관계자들과 조선대병원 교직원들의 가슴속에 새기는 초청 강의를 열었고, ㈜동양의료기 김선창 대표이사가 멕코믹병원에서 소중하게 쓰일 의료물품을 기증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태국 치앙마이를 찾아 의료봉사단을 파견하여 소외된 의료취약계층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태국 멕코믹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새로운 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돌아왔다.

## 러시아 해외 新시장 개척을 위한 '의료관광 설명회'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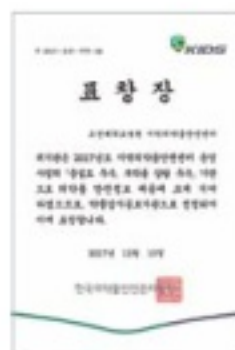
▶ 관절, 장기이식수술, 癌 질환 관련 왓슨 문의 등 중증질환에 대한 관심 제고

지난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광주광역시와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와 함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광주광역시의 수준 높은 의료를 알렸다. 의료관광 마케팅 시장의 확대를 위한 이번 러시아 방문은 조선대병원, 조선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시엘병원, 청연한방병원, MJ루스코 등 8개 기관이 참석하였으며, 조선대병원에서는 이준영 대외협력실장(정형외과)과 박상곤 공공의료지원실장(종양혈액내과)이 함께하여 에이전시와 다양한 정보 교류를 가졌다.

또한 러시아 profi clinic과 의사연수 및 상호간의 교류등의 내용이 담긴 MOU를 맺음으로써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협력을 돈독히 하였다. 설명회에 참석한 20여개 현지 에이전시 기관 관계자들은 수도권에 비해 경쟁력을 지닌 장기이식분야 및 관절 질환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기도 하였으며, 일부는 호남최초로 도입한 'IBM 왓슨포온콜로지(이하 왓슨)'에 대해 왓슨을 이용한 중증 癌 질환 치료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조선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구분기)으로부터 '2017년 약물관리 공로자'를 선정하고 표창하는 자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조선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센터장 권용은)는 2015년과 2016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래, 올해 2017년까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전국 27개소에 운영중인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의약품 이상사건을 수집하여 집중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며 소비자의 의약품 부작용 상담 활동을

수행하는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식약처에서 지정하는 의약품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며 약물이상반응을 감시하고 있다.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조선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의 모범 사례는 타 센터와 유기적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방문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12월 20일 오후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를 방문했다. 최근 신생아 중환자실의 미숙아 사망사건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신생아 치료실의 실태에 대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와중에, 광주광역시장이 직접 관내 주요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를 방문한 것이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현재 시민들이 의료기관을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지만, 이럴수록 기본을 지키며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져 달라"며 의료진을 격려했다.



의료  
칼럼눈,  
얼마나 알고있나?

안과 김대현 교수

## ◆ 선글라스는 무조건 좋은 것인가?

계절과는 무관하게 햇빛이 많은 계절 및 시간대에 선글라스를 자주 쓴다. 하지만, 이러한 선글라스는 성장기에 있는 어린아이의 눈 건강에는 독이 될 수 있다. 어린 아이들이 선글라스를 자주 착용하게 되면 눈 성장에 필요한 가시광선까지 차단하게 됨에 따라 오히려 눈 성장에는 좋지 않을 수 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 오히려 햇빛에 자주 노출될수록 근시진행이 억제돼 발현률을 낮춰주게 된다. 따라서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선글라스의 착용을 자제하며, 햇빛을 듬뿍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 ◆ 안경을 쓰면 시력이 나빠진다?

시력 저하로 안경을 쓰려고 하면 주변의 어른들로부터 '안경은 한번 쓰면 시력이 계속 나빠지기 때문에 안경을 구입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하지만 이는 결코 옳은 정보가 아니다.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쓰는 안경은 시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력을 교정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시력과 관련 있는 것은 안경이 아닌 그 사람의 유전적 원인, 외부 환경적 요인 등의 다양한 원인에 근거해 나타나는 증상이다. 오히려 시력을 잃는 과정에서 시력을 교정하지 않는다면 약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눈에 이상이 있다면 곧바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 안약은 만병 통치약이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요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밤낮으로 스마트폰에 열중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기기에 장시간 노출이 될 경우 눈은 건조하고 피로해지기 쉽다. 특히 이런 경우에 자주 발생하는 증상이 흰자위가 별갈게 보이는 눈 충혈 증상이다. 이러한 경우 약국에서 안약을 구입해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는 분들이 매우 많지만, 이는 눈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단순히 눈이 충혈되는 경우가 아닌 다른 기전에 의한 충혈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 안약을 넣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눈 건강이 매우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약보다는 전문가의 검진과 치료를 받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요즘처럼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는 그 어느 때 보다 눈 건강에 주의해야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근거 없는 눈 건강에 대한 정보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실명의 단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믿는 것은 좋지 않다.

대한안과협회가 지정한 '눈의 날(11월 11일)'을 맞아 잘못된 눈 건강 상식과 올바른 눈 건강 상식에 대해 살펴봤다.

## ◆ 라식을 하면 눈이 금방 늙는다?

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 및 취업을 준비하는 성인까지도 라식 수술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라식수술에 대한 부작용과 관련된 정보는 매우 많다. 그 중에서도 라식 수술을 하면 금방 노안이 된다는 소문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잘못된 정보다.

노안은 단순히 노화현상의 일종으로 눈을 구성하고 있는 수정체의 탄력성 및 비대증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며, 라식수술은 레이저로 각막을 절개해 눈의 굴절률을 변화시키는 수술이기 때문에 라식수술과 노안간의 상관관계는 없다고 보면 된다. 다만 노안은 일반적으로 40세 이후에 오는데 40세 이후 라식수술을 하게 되면 노안이 오는 시기와 겹쳐 노안증상을 빨리 느낄 수도 있다. 따라서 40세 이후 라식수술을 하고 싶다면 수술 전 안과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수적이다.

## ◆ TV나 책, 스마트폰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면 눈이 나빠진다?

TV나 스마트폰이 눈에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TV나 스마트폰을 가까이에서 장시간 본다면 이는 근시의 발생과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론 가까이서 본다고 100% 근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좋지 않은 자세나 어두운 조명 아래 장시간 TV나 스마트폰을 본다면 근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TV 나 책, 스마트폰을 볼 때는 좋은 자세로 밝은 조명하에서 보고, 책이나 스마트폰을 30분간 봤으면 10분 정도는 멀리 있는 물체를 바라보는 것이 좋다.

## 겨울철 추천도서

## 나만 믿고 따라와



저자 이순환

30대 추천 도서 중 하나인 '나만 믿고 따라와'는 나락으로 떨어진 백수 가장이 그의 가족과 함께 현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8,300kb가 넘는 거리를 직접 운전하며 세계여행을 하는 내용으로, 앞날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도망치듯 떠나는 여행이지만 가족에게 행복과 함께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는 내용이다.

자칫 일반 여행 에세이와 비슷한 성격이라 여길 수 있겠으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아토피로

고통 받는 첫째와 열 살도 안 된 둘째 아이까지 유럽 전역을 가족과 함께 서로 의지하는 모습은 감동을 불러 일으키며 현실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닌 여전히 생존을 위한 투쟁의 연속이라는 말로 공감을 자아내는 편안하게 읽기 좋은 책으로 추천되고 있다.

## 가슴 따뜻해지는 영화

## 행복을 찾아서



주연 윌 스미스, 제이든 스미스

지난 2007년 개봉했던 이 영화는 윌스트리트의 성공 신화로 이목을 끈 자산관리회사 '가드너 앤 리치 컴퍼니'의 설립자 크리스 가드너의 감동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가난과 위기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아들과 자신의 꿈 모두를 지

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위대한 아버지 이야기를 그려낸 많은 관객들의 호평과 함께 인생의 교훈을 얻는다는 찬사를 받은 영화이다.

영화의 결말은 정해져있다. 주인공이 힘든 고난의 문턱을 넘어 희망을 마주하는 것. 하지만 희망을 마주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아프다. 경제적 위기 속에 일가족들이 겪어낸 고통을 잔인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묘사했는데 그 고통을 넘어 희망이 보이는 시점부터 마음을 놓고 영화 제목처럼 '행복을 찾았다'라는 기분을 느낄 것이다. 꼭 한번은 봐야한다고 생각되는 영화이다.



병원  
소식

## CHOSUN UNIVERSITY HOSPITAL



## ‘제14회 빛고을 나눔장터’ 수익금 기부 받아

▶ 광주시민의 정성과 사랑..난치병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길



11월 28일 오후 2층 하종현홀에서 ‘제14회 빛고을나눔장터 희귀난치성 어린이 돕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2004년 ‘빛고을 최대 나눔장터’란 이름으로 처음 시작되어 현재까지 14회를 맞이하는 ‘빛고을 나눔장터’는 100여곳이 넘는 단체가 참여하며, 나눔장터에서 모아진 기부금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아들에게 전달됐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사랑방미디어와 무등일보, 광주MBC, 국제로타리3710지구,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좋은PR착한기업, 아름다운가게 등이 참여했으며, 지난달 14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빛고을 나눔장터’를 통해 모인 수익금(2,164만여원)을 조선대병원에 전달했다.

조덕선 사랑방미디어그룹 회장은 “나눔장터가 매 회가 지날수록, 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해 진정한 나눔정신을 배우고, 기부하는 날로써 앞으로 더 많은 참여속에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나눔장터의 발전을 기원했다.

### Best Smile 교직원



감염내과 김동희 교수

병동간호2팀 김유나 간호사

원무팀 오은숙 선생

## 김수관 조선대치과병원장, 인공지능암센터에 따뜻한 그림 기부



김수관 조선대치과병원장은 12일 본관 1층 인공지능암센터를 방문하여, 암환자를 위한 그림을 기부했다.

이번에 기증한 작품은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의 김종경 교수의 ‘사유(思惟)의 꽃3’의 작품이다.

김수관 조선대치과병원장은 “이 그림이 암환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과 위안이 되면 좋겠다”며 “인공지능암센터를 찾는 환자들에게 최상의 암 치료를 제공하여 그분들의 고통을 덜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주기적으로 다양한 작품 전시회를 열며 병원을 찾는 환자 및 보호자들의 안정과 쾌유를 빌고 있다.

### 조선대학교병원 발전기금 약정현황 (2017.11. 1. ~ 12.31)

(단위: 원)

번호	소 속	성 명	약정금액	누 계
1	조선의대동창회 장학재단		30,000,000	60,000,000
2	조선대학교치과병원	김수관	1,500,000	2,500,000
3	총무부	오유순	700,000	9,779,770
4	총무부	유준기	1,000,000	13,031,680
5	기획실	곽정	1,000,000	9,341,610
6	진료부	김미정	1,000,000	6,582,600
합 계			35,200,000	

◆ 조선대학교병원 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선대학교병원 발전기금 모금캠페인

★ 참여방법 : 10만원 이상 참여 가능하며, 입금 후 기획실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납부방법 : 온라인입금 또는 직접 납부

- 온라인입금계좌

광주은행 002-107-000819, 예금주 : 조대병원

농협중앙회 605-01-009496, 예금주 : 조대병원장

- 직접 납부

조선대학교병원 기획실(10층) 방문

★ 문 의 : ☎ 062) 220-3732 Fax. 062) 227-3215

조선대학교병원 기획실 발전기금담당

★혜택 : 기부금액은 법정기부금이며, 국가가 인정하는 세액공제 혜택과 병원에서 제공하는 기부자 예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나눔을 연결하는 좋은 네트워크  
CU Again 7만2천

여러분이 **건축 100년의**  
**새로운 주인공입니다.**



CU Again  
7만2천  
발전기금 모금캠페인



조선대학교병원 712-1 www.chosun.ac.kr  
T: 062-220-3732 F: 062-227-3215  
E: chosun@chosun.ac.kr chosun@chosun.ac.kr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